

종합·해설

선택 4·11 D-2

광주 서을 이정현·오병운 후보 선거유세 동행취재 해보니...



새누리당 이정현 서구를 후보가 8일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호수공원 근처에서 산책 나온 한 유권자와 악수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아권단일 후보인 통합진보당 오병운 서구를 후보가 8일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호수공원에서 만난 한 유권자에게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4·11 총선에서 광주 서구를 선거구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서구 읍에는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와 야권연대 단일 후보인 통합진보당 오병운 후보, 정통민주당 이점자 후보, 무소속 정남준 후보 등 4명의 후보가 나섰다. 이 가운데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정현 후보와 오병운 후보의 막판 선거운동을 동행취재했다.

興 호남·野 영남 반란 일어날까 수도권 야권연대 위력은 얼마나

■ 총선 관련 포인트

4·11 총선이 불과 2일밖에 남지 않았으나 전국적인 관세는 오리무중이다. 특히 70~80개 지역에서 1~2위 후보 간 여론조사 격차가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않음에 따라 총선 성적은 개표를 마무리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영·호남의 반란 현실화되나>=영남지역에서 야권이 의석을 차지한 일은 처음이 아니라서 색다른 것은 없지만 이번에는 부산·경남·울산 등에서 몇 석을 얻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곳에서 선전할 경우 5~7석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투표 막판에 여당 바람이 불지 않았을 때 가능한 수치여서 야권에서는 가슴을 졸이고 있는 상황이다. <호남에서의 반란 현실화되나>=호남지역에서는 야권이 의석을 차지한 일은 처음이 아니라서 색다른 것은 없지만 이번에는 부산·경남·울산 등에서 몇 석을 얻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곳에서 선전할 경우 5~7석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투표 막판에 여당 바람이 불지 않았을 때 가능한 수치여서 야권에서는 가슴을 졸이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야권연대 위력은 얼마나>=수도권 야권연대=승리라는 공식이 무조건 작용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선거 막판 나주·화순, 광주 서갑에서 벌어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후보 간 후보 단일화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소속 바람은>=공천 탈락에 반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의 성적표도 주목을 끈다. 이들 후보들은 수도권과 영남 일부 지역에서 여야 후보와 함께 3과정을 형성하고 있어 막판 표몰이 여부에 따라 여의도 입성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 호남지역에서도 나주·화순의 최인기, 광주 서갑의 조영택·송갑석·정용화, 광주 북구의 김재근 후보 등이 무소속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통합진보당 성적은>=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20석 이상을 차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구에서 15석 내외, 비례대표로 5~6석을 차지해야 가능한 수치지만 지역구 성적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에서도 광주 서을의 오병운, 순천의 김선동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어 최종 선거 결과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표밭같이 하루 15시간 강행군 새벽 4시부터 바닥 민심 훑기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

“호남 예산 지킴이에 기회일”

“시민 여러분 저 좀 지켜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인물을 보고 한 번 찍어주세요요..” 지난 7일 광주 서구 매월동 농산물도매시장 앞 도로. 완연한 봄별 속에서 1t 화물차를 개조한 유세차량에 몸을 실은 새누리당 이정현 광주 서구 을 후보는 ‘호남 예산 지킴이’를 자처하면서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고 있었다. 서구 읍에는 이 후보와 야권연대 단일후보인 통합진보당 오병운 후보가 박빙의 접전을 벌여 27년 만에 ‘민주당 일당독점’ 구도가 깨질지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선거구다. 빨간색 점퍼를 입은 그는 지나가는 시민과 차량을 향해 ‘90도 인사’를 했다. 그는 “호남을 지켜내겠다. 고향을 위해 뜨겁게 일하려는 젊은 후보를 지켜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차 안의 시민들은 대부분 이 후보를 흘려 쳐다보고 지나쳤다. 15분가량 지났을 즈음, 한 운전자가 창밖으

로 얼굴을 내밀고 “이 후보 파이팅”이라고 응원했다. 운전대에서 두 손을 놓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사람도 있었다. 목이 터져라 외쳐대는 이 후보의 연설에 한 30대 남성 운전자는 “당을 떠나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말했다. 선거 방식은 ‘야보다 짙’이었다. 유권자들과 눈을 맞추며 한마디라도 대화를 주고받으려 애를 썼다. 공약으로 내건 정책소개도 잊지 않았다. 이 후보 지지층은 주로 40대 이상이었다. 하루 평균 15시간 이상 선거운동에 나선 만큼 체력적으로 힘들 텐데도 시종일관 밝은 표정을 잃지 않았다. 새벽 4시30분께 선거유세를 시작해 자정께 유세를 마친다. 이 같은 강행군에 본격 선거운동 돌입 이후 몸무게도 많이 줄었다. 선거 막판 표밭을 누비는 그의 표정에서 긴장감도 묻어났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두 세시간 정도다. 차량 유세는 물론 지역구 곳곳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는데, 중앙당 지원 없이 거의 홀로 다닌다”며 “1분 1초가 소중한 시간인 만큼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뜻한 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통합진보 오병운 후보

“야권 단일후보에게 한 표를”

지난 7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금호동 중앙공원. 오랜만에 기온이 15도 이상 오르는 화창한 봄 날씨 속에 공인 주변은 주민들로 북적거렸다. 그 틈에서 야권연대 후보인 통합진보당 오병운 후보에 대한 당원들의 지원 유세가 한창이었다. “광주에서 새 정치를 일굴 수 있도록 반드시 야권연대 단일후보를 꼭 찍어줘야 합니다.” “광주에 새누리당 후보가 발을 붙이면 새누리당 정권이 다시 태어납니다. 정권심판을 위해 야권연대 단일후보를 당선시켜야 합니다.” 오 후보는 봄 나들이를 나온 유권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시민들은 야권연대 후보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격려를 보냈다. 주민 이모(여·72·서구 풍암동)씨는 “새누리당은 여태껏 서민을 위해 일 한 적이 없다. 그런 새누리당을 누가 찍어주겠느냐. 격정하지마라”며 오 후보를 격려했고, 이씨의 친구인 정모(여·71)씨도 “이부리 인물이 좋다고 해도 아직

은 광주에서 새누리당 후보는 안돼. 택도 없는 소리제”라고 말했다. 이에 오 후보는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지금껏 살아온 삶을 바탕으로 새 정치를 일굴 것을 약속한다”고 회답했다. 오 후보는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최근 5일 동안 하루 1시간씩 자며 ‘바닥 민심 훑기’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초반의 싸움인 만큼 단한 표가 소중하기 때문이다. 새벽 4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해 다음날 새벽 2시에 선거를 끝내는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강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상대 후보인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에 대한 바닥 민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오 후보는 남은 선거기간 동안 유세 보다는 직접 발로 뛰며 야권연대와 정권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을 설득할 생각이다. 오 후보는 “그동안의 선거를 보면 통합진보당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실제 투표결과에 비해 5% 정도 낮게 나오는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점과 현재 지역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 후보보다 지지율이 앞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승리를 자신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유권자 58.1% “반드시 투표”

유권자 10명 중 6명은 이번 4·11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코리아리서치센터가 지난 1~3일 전국의 19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9.6%가 “선거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고, 58.1%는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변했다.

▶ 선관위 전국 1500명 설문 66.7% ▲60대 이상 80.6% 등이었다. 후보자 결정 여부에 대해서 ‘결정했다’는 응답이 45.9%,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53.0%로 각각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유권자가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후보자 선택기준으로는 ▲정책·공약(38.1%) ▲인물·능력(24.8%) ▲소속정당(16.5%) ▲주위평가(7.3%) ▲정치경력(4.9%) 등의 순으로 나타나 후보자 개인이나 정당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보다는 정책과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제19대 총선의 부재자 투표를 마감한 결과, 투표대상자 75만 5041명 가운데 68만258명이 투표해 90.1%의 투표율을 보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자유투어' (JAYU TOUR)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to destinations like China, USA, Europe, and Southeast Asia. Include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different branches.

예/약/상/담 북구점 267-8587 상무점 652-2974 수완점 574-1300 동구점 227-8255 하남점 954-9700 목포점 061-284-1000 광양점 061-794-8804 전주점 063-284-6868